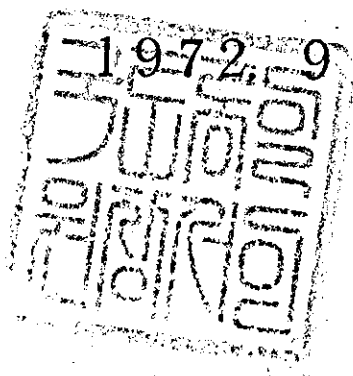


北韓의 對外關係



北韓의 對外活動

1. 對外政策 決定 및 執行過程

- 가. 對外政策의 基調
- 나. 對外政策 決定過程
- 다. 對外政策 執行過程
- 라. 小結論

2. 對外政策 變遷過程 및 外交基本路線

- 가. 對共產圈 政策變遷過程
- 나. 對中立國政策 變遷過程
- 다. 對自由圈政策 變遷過程
- 라. 小結論

外交基本路線

3. 對外活動現況 및 展望

- 가. 對外公館 現況
- 나. 招請, 訪問現況
- 다. 最近動向分析
- 라. 小結論 및 展望

外交의 力量

oooooooooooo

한 政權의 政策目標을 위하여 國際的 支援을 動員할 수 있는 能力

1. 한 國家나 政權의 信賴性 (trustworthiness)
2. 追求하는 政策目標의 國際的 受諾度 (international acceptability)
3. 必要의 獨自의 充足能力 (need independency)
4. 他國의 自國에 對한 依存度
5. 外交陣의 量과 質
6. 書式化된 外國과의 紐帶關係
7. 國際的 同調性 (international responsiveness)
8. 外交政策의 開發力量

1. 對外政策決定 및 執行過程

가. 對外政策의 基調

- 革命基地建設이라는 党的 戰略的 基本路線은 곧 北괴政權의 對外政策의 基調
- 北괴의 外交政策은 흔히 말하는 「內政의 延長으로서의 外交」라는 國家實利的인 側面과 「党的 戰略遂行을 위한 戰術」로서 보는 共產主義 革命의 側面이라는 二重性을 띠고 있다.
- 「朝鮮적인 共產主義社會 建設을 達成하기 위한」 党的 綱領에 從屬

註 1) A. 朝鮮總聯中央委員會編 「조선력사」 학우서방, 1964.

...解放後 美帝의 南朝鮮 独占으로 因하여 우리革命의 複雜性과 艱苦性이 造成되었다. 우리祖國에 造成된 이 複雜한 情勢는 全朝鮮적으로 되는 革命의 同時的 發展을 不可能케 하였다. 우리革命의 ...終局的 勝利를 保障하기 爲하여서는 革命力量을 蓄積하고 全國的 範圍에서 革命事業의 遂行을 保障하는 問題가 必要하였다. 때문에

B. 金日成同志는 우리나라 北半部에 蘇聯軍隊가 進駐한 有利한 條件을 利用하여 民主革命基地 創設에 대한 勸業을 指示하였다. 이 方案은 우리祖國에 造成된 情勢에 對処한 가장 正確한 路線이었으며 ...

註 2) C. 66.10 金日成의 北괴黨代表者會議 報告, 第 2 章

D. ...現段階에서 朝鮮勞動黨과 朝鮮人民앞에 나서고 있는 最大의 民族的 勸業은 祖國의 統一과 革命의 勝利를 造成하는 것이다. 이를 爲하여서는 우선 人民들이 主權을

잡고 새 생활을 創造하고 있는 北半部에서 革命과 建設을 強力히 推進시켜야 하며, 北半部를 우리 革命의 偉대한 基地로 만들어야 한다.

註 3) 北괴 勞動黨 規約 前文 (61.9.18 4次 黨大會에서 修正)

... 朝鮮 勞動黨의 當面目的은 共和國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保障하며 全國的 範圍에서 反帝, 反封建的 民主主義 革命의 事業을 遂行하는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共產主義 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고 規定

나. 對外政策 決定過程

○ 形式的 最高政策決定機關으로서의 最高人民會議

註 1) 北괴 憲法 (48.9.8 採択)

最高人民會議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最高主權機關이다 (32 條) ... 最高人民會議는 國家最高權力을 行使한다. (37 條) ... 國內, 國外政策에 關한 基本原則의 樹立은 最高人民會議의 權限에 屬한다 (37 條 2 項) 따라서 北괴 對外政策에 關한 基本原則의 最高政策決定機關은 最高人民會議라고 할 수 있다.

... 最高人民會議는 討議할 問題를 미리 審議하기 위하여 適當한 委員會를 組織할 수 있다. 이 委員會는 主權機關 및 그 所屬機關을 檢閱할 수 있다. (42 條)

따라서 外交委員會는 政府가 提出하는 外交政策을 事전에 調整하고 見解差를 統合하는 機能을 行하며, 外務省을 檢閱할 수 있는 權限이 賦與된 셈이다.

外交委員會의 任務 (49 條 8, 9, 10 項)

- (1) 外國과의 條約의 批准 및 廢止
- (2) 外國에 駐在하는 大使 및 公使의 任命 및 召還
- (3) 外國使臣의 信任狀 및 解任狀의 接受

(註) 그러나 實際의인 權限行使를 行한 文獻 發見치 못하고있다.

<實例> 1965.5.20 第3期4次 最高人民會議議題

- 美帝의 侵略을 反對하는 越南人民에 正義의 鬪爭을 積極 支援할데 대하여 (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 提出)
- 全民族이 聯合하여 犯罪的인 韓·日會談을 紛爭할데 對하여 (北괴內閣 提出)

<進行事項>

- 첫 議題... 報告者: 党中央委副委員長兼內閣副首相 金光俠
討論者: 康良욱, 김활용, 박신덕, 임진규, 황건보
변창복
決 議: 滿場一致 通過

- 두번째 議題: 報告者: 外務相 朴成哲
討論者: 洪命희, 최순남, 정준기, 김봉한
決 議: 滿場一致 通過

(註) 代議員 選出 自體가 黨에 의해 指名, 最高人民會議常任委 構成員, 外交分科委員會 構成員은 黨組織에 의해 結合되어 있다.
→ 構成員의 各個人은 黨의 組織에 屬한 一員一上級機關에서 決定된 事項에 修正을 加할 權限을 이미 剝奪當함.

(註) 外交政策 決定에 參與하는 最高人民會議 外交委員會 構成員들 의 黨內職位는 大部分 下位에 屬한다. 이들은 黨最上層에서 決定한 事項에 대해 修正할 位置에 있지 못한다.

- 實質的 最高政策 決定機關으로서의 勞動黨

(註) 黨의 政策決定過程 進行狀況

- 黨의 最高機關은 黨大會와 (黨規約 5章 黨中央機關 31條)

- 主要事業：黨政策과 戰術의 基本問題 決定
 黨中央委員會, 其他 中央機關의 事業總和 報告
 聽取, 討議, 이를 承認(黨規約 32條)
- 黨大會에서의 中央委員會 事業總和報告, 通常 中央委員會
 委員長 金日成
- 따라서 最高政策決定機關으로서의 黨大會는 黨中央委 事業
 總和報告를 討議하는 機關이 아니라 이를 承認하는 機關
- ※ 黨規約 41條 黨中央委員會는 黨大會와 黨大會 사이에
 全體黨 事業을 指導하며 黨大會 決定에 基礎하여 黨의
 政策을 樹立하고 그 執行을 組織하며 黨의 各種機關을
 設置하고 그 活動을 指導하며 幹部 等을 配置 및 育
 成하며 國家 經濟, 文化機關들과 社會團體들을 指導하며
 其他 政策 및 團體들과의 關係에 있어 黨을 代表하며
 黨財政을 管理한다.
- ※ 1961.9 金日成의 黨中央委 事業總和報告 모든 國
 家機關 및 勤勞團體, 經濟文化機關 等이 黨中央委員會
 決定에 根拠하여 自己事業을 責任的으로 遂行하도록 그
 에 대한 黨의 指導와 統制를 더욱 強化, 事業을 계
 에 檢閱, 總和하여야 한다.
- 政治委員會는 中央委員會는 中央委員會 全員會議과 黨大會
 사이에 黨中央委員會 名義로 黨의 모든 事業을 指導한다.
 따라서 實際 政策決定의 最高頂上에 位置한 機關은 政治
 委員會이다.

政治委員會 名單

5次黨大會

姓名	同委員會職責	黨 및 國家機關에서의 地位
金日成		秘書，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長
최용건		秘書，第1副首相
김 일		第2副首相
박성철		民族保衛相，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
최 현		秘書，
김영주		" ，民族副相，總參謀長，最高人民會議
오진우		常任委員
김동규		秘書
서 철		
김중린		秘書(對南工作責)
한익수		"

候補 4名：현무광，정준택，양형섭，김만금

※ 黨의 對外政策關係部署 國家機關：黨中央委秘書局 傘下 「國際部」，「連絡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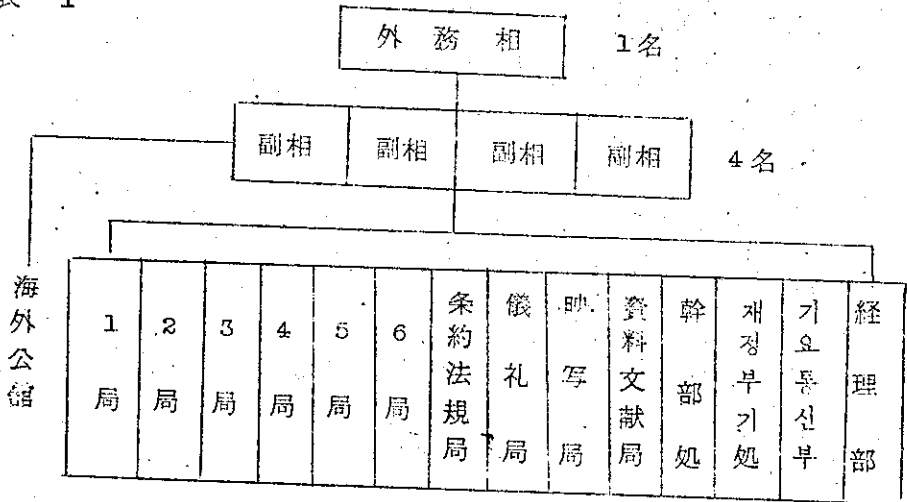
：「外務省」，「貿易省」，對外文化連絡協會 等

政治委員會는 「政策을 樹立할 뿐만 아니라 그 執行을 組織하며 黨의 各種機關을 通하여 모든 國家機關을 指導監督하는 最高機關이다。 따라서 政策樹立에 必要한 各種資料를 黨 및 國家機關을 莫論하고 恆時 要求할 수 있다。

- 政治委員會의 命令이나 指示는 法律以上の 效果를 가진다.
 党的 指示에 關한 實行与否는 흔히 各機關 및 社會團體內에 組織되어 있는 黨機關에 依하여 點檢, 確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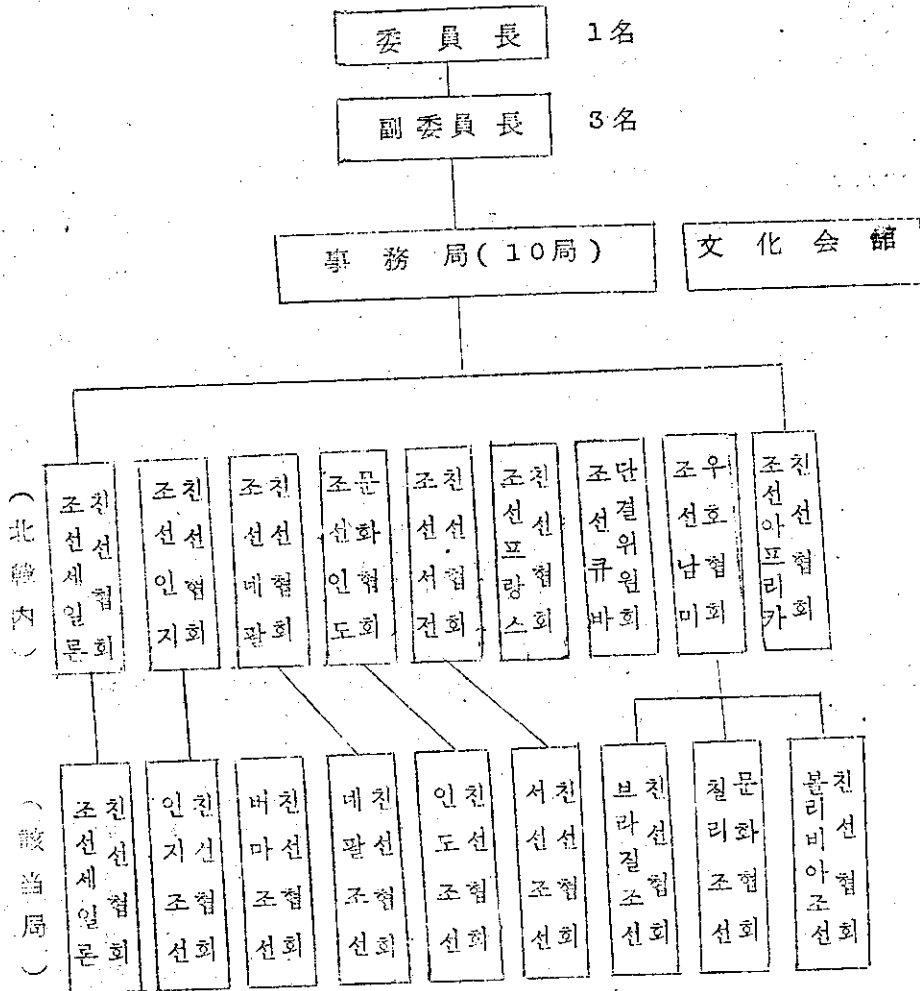
結論... 北對外政策의 決定過程은 黨中央, 政治委에서 樹立된것이 黨中央委 全員會議과 黨大會에서 修正없이 承認되고, 形式上 憲法에 明示된 最高人民會議의 外交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最高人民會議 本會議에서 最終決定을 받게 되는 節次를經由
 ○ 大部分의 경우, 黨中央委政治委員會의 決定은 執行部署에 即時 通告되어 實現되며, 그後 뒤 節次에 依해 追認된다.

別表 1



別表 2

對外文化連絡協會 機構圖



다. 對外政策 執行過程

- 北韓 對外活動의 모든 責任은 內閣首班인 首相의 管掌下에 있다.
- 그러나 內閣首相은 党的 最高首腦者인 党中央委員會 政治委員會 委員長, 總秘書인 金日成 兼務, 實際的으로 政策決定 執行은 金日成 一人에 依해 指揮, 監督
- 首相 金日成은 對外政策의 全執行責任을 副首相 兼 外務相에게 委任
- 外務省은 外交執行의 核心部署, 그러나 北韓의 對外業務는 一元的으로 外務省에만 集中되어 있지 않다.
- 広範한 民間外交를 管掌, 非政治的 對外活動 企劃, 執行機關 — 「對外文化連絡協會」
- 通商去來를 通한 外交活動担当 — 「貿易省」

北韓外交領域 擴大와 그의 段階的 展開法

- 北韓外交政策은 党的 目標하는 共產主義革命戰略에 從屬, 그 戰術的 手段으로 利用
- 國際育勢 變化에 適應, 政治的 連繫는 勿論 實務的 連繫 強化
- 實務的 關係의 發展은 곧 外交政策 展開에 있어 多段階的 方法을 採択해야 한다. 長期間의 接觸過程을 通해야만 可能, 最終 外交關係 樹立까지는 보다 融通性있게 展開되어야 함을 意味
- 實務的 關係 — 政治的 關係 發展된 事例

「알제리」·北韓間 關係發展

- (1) 58년부터 「알제리아」獨立運動 支持聲明 發表(國際共產主義戰線機構 通해)
- (2) 58.7.25 「알제리아」臨時政府 承認
- (3) 62.4 赤十字會 名儀, 「알제리아」避難民, 犧牲者의 遺家族에 織物 및 醫藥品 發送
- (4) 62.7.4 金日成名儀, 「알제리아」政府 臨時首相에게 政府承認 祝電發送
- (5) 62.9.30 金日成名儀, 「벤·벨라」首相 祝電發送, 政治, 經濟, 文化的 關係發展 希求
- (6) 62.10.10 「벤·벨라」 金日成에 答電
- (7) 62.11.5 「알제리아」政府招請, 祝賀使節團 「알」訪問
- (8) 62.12.4 北韓赤十字會 「알」難民을 위한 救護物資 送付
- (9) 63.5.1 外交關係樹立

新生國家의 境遇

- 獨立運動 勢力中 主體團體와의 關係設定부터 始作(精神的 支援 聲明 發表)
- 獨立國家 誕生境遇, 遲滯없이 이를 承認, 祝電 送付
- 이를 契機로 各種機能別 團體 名儀로 招請 또는 訪問外交 展開(民間外交의 形態를 띠고)
- 非政治的 接觸을 通해 北韓宣傳 展開, 理解促進 → 文化, 經濟的 交流 中心 實利面을 相對方에게 提示, 擴大範圍를 보다 現實的인 面으로 誘導해 간다.

- 非政治的 接觸거쳐 本格的인 政治的 接觸進行, 外交關係 樹立에 골인

特徵: 1. 相對國의 災禍나 不祥事에 대하여 遲滯없이 行動, 最小限의 資金이나 말로서 最大의 效果를 거둔다.

- 2. 한편 北韓外交는 大前提인 全韓半島에서의 共產主義革命 達成을 위하여 「反帝, 反植民地 民族解放」을 標榜한 反美, 反西歐運動과 直結시키고 있다. 때문에 外交의 中心 地域은 共產圈을 除外하고 新生國家群이 集中된 ASIA, AFRICA, LATIN AMERICA 等

- 3. 그밖에 貿易去來 進行

※ 蘇聯憲法 14條: 蘇聯對外政策樹立의 最高決定機關은 蘇聯邦最高 소베트로 規定

- 이러한 憲法上의 權限에 基礎한 蘇聯邦「소베트」의 活動은 지금까지 主로 條約의 批准 및 廢棄, 그리고 對外政策에 關한 報告의 承認
- 對外政策에 關한 報告는 政府(關係會議)가 行하고, 이 報告에 對한 討論을 大部分 省略, 그대로 承認
- 蘇聯邦最高소베트의 聯邦會議의 民族會議로 構成, 兩院 外交委員會, 同 外交委員會의 役割은 → 外交政策決定機關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政策是認機關 또는 政策宣傳機關의 性格
- 獨自性問題
- 中·蘇의 對北韓支援 비슷
71年동안 中共은 魚雷艇, T59型 電車 等 武器, 蘇聯은

SU 7 전동기 10余台 供給

北韓이 中共·蘇 어느 한쪽에 기울이지 않았다는 証拠

○ 貿易

對中貿易에 기울이지 않았다. 中共의 유엔加入과는 달리 昨年 1年동안 對蘇貿易赤字는 1億 2,000 萬弗

이같은 諸般關係 考慮, 中共의 유엔加入과는 關係없이 北韓은 外交的인 獨自路線 維持가 可能하다는 展望

小結論

- (1) 北韓의 對外政策의 決定과 展開는 勞動黨의 指導와 監督下에 서 進行되고 있다.
- (2) 對外政策 樹立과 執行은 明文的으로 「소베트」式에 依拠하고 있다.
- (3) 北韓은 對外政策 執行面에 있어서 彈力性과 融通性을 갖고 있다.
- (4) 北韓은 對外政策 決定과 執行面에 있어서 獨自性을 維持하고 있다.

- 主体性을 維持할 수 없었던 50年代 前半期까지는 主로 政權樹立者인 蘇聯에 依해서 始終一貫 干涉, 監督
- 56年 20次蘇聯共產黨大會 「후르시초프」에 依한 「스탈린」格下運動과 平和共存路線 實施부터 北韓은 漸次 蘇聯의 影響에서 離脫, 特히 中蘇對立 激化부터 中共背景으로 對蘇 依存 脫皮에 成功
- 그後 北韓政權은 또다시 蘇聯으로부터의 離脫過程을 反復하

- 여 中共의 影響으로 부터의 離脱을 劃策 66年 以後 成功
- 66年以後 北韓은 對外政策決定과 執行面에서 兩大共產支柱中 그 어느 한쪽에도 기우려짐이 없이 自身の 獨自性을 維持할 수 있는 基礎 마련

背景：60年代의 國際政治의 多元化 傾向

2. 北韓 對外政策 變遷過程과 基本路線

가. 對共產圈

- (1) 對蘇關係
- (2) 對中共關係
- (3) 其他 共產國家關係

나. 對中立國

- (1) 浸透過程
- (2) 浸透戰術

第1章：北韓外交領域 擴大와 그의 段階的 展開法

○ 實務的 關係—政治的 關係 發展도 實例

(가) 平和共存 標榜

(나) 反帝 反植民主主義 標榜

(다) 文化交流

(라) 國際共產主義組織을 통한 招請 및 訪問

(가) 貿易을 統合

對共產圈政策 變遷過程

가. 蘇 聯

(1) 6.25 動亂 支援期 (48.9~53.7)

- 49.1 스티코프 蘇聯大使 正式赴任, 32名 軍事顧問團 到着
- 49.3 10 個年經濟·文化協調協定 締結
- 50.6 直前 步兵 10 個師團 18 萬 4,000 名 各種砲, 戰車, 裝甲車, 航空機 (211 台), 艦艇 30 隻 北韓軍 增強

(2) 戰後 復旧 및 經濟計劃 支援 (53.7~60.12)

- 1953.8 蘇聯首相 「말렌코프」 最高소베트 5 次會議에서 戰後復旧를 爲하여 10 億 「루블」 提議, 同援助協定 締結
- 56.6.1~7.19 金日成 團長 代表團 訪蘇, 北韓 第 2 次 5 個年計劃에 必要한 援助獲得 目的 → 蘇聯 or 東歐衛星國家 巡訪 → 蘇聯이 機械 및 資材設備品 支援 約束 (興南肥料工場)
- 58.5 鄭一龍團長 經濟代表團 訪蘇, 59~65 經濟協助에 關한 議定書 調印 等 無償援助, 借款의 償還免除
- 61.7 相互防衛條約 締結

(3) 對蘇關係 惡化 (61~64)

- 62 年부터 中·蘇紛爭에서 中立을 지키던 北韓이 中共路線을 追從 그 結果 關係惡化
- 62.11 金光俠 團長 北韓軍事代表團 蘇聯訪問, 軍費支援

要請했으나 成果 無

- 62.12 労働党 4期 5次 全員會議 開催, 国防力 強化政策을 決議 (自力防衛政策 強調)
- 64.1 「로동신문」社說에서 中共의 強硬路線 追從 支持
- 65.3 「모스크바」世界共産党會議 不參

(4) 对蘇關係 改善期 (65~)

- 65 蘇聯首相 「코사이긴」 北韓訪問, 軍事同盟關係 및 共同防衛業務를 再確認
- 65.5 对独戰勝 20周年記念式 北韓 參加, 5月 31日 軍事援助協定 締結 및 軍事援助 再開
- 66年 蘇聯共産党 23次大会 參席
- 66.8.12 "自主性을 擁護하자" 라는 論說 發表 (自主性 宣言)
- 69以來 北韓은 6個年計劃을 위한 蘇聯의 援助獲得과 对中 共關係 緊密化에 따른 現狀의 对蘇關係維持 努力

나. 中 共

(1) 6.25動亂 支援關係 (49.10~53.7)

- 50.7 周恩来은 유엔軍의 韓國參戰에 대하여 「安保理의 決議는 美國의 武力侵略을 弁護하는 것이며 世界平和에 대한 蹂躪이다」라고 聲明
- 50.8.15 毛布 10萬枚, 医薬品 救護物資 傳達
- 50.8.24 周恩来, 中共軍의 直接介入 暗示 (유엔事務總長에게 電文)

- 50.10.25 <人民志願軍>이란 名目下 直接 韓國戰 介入
 - 51.1.17 中共 總工會에서 5億元 援助募金 決定 豚肉 20貨車 其他 支援
 - 動亂中 中共은 19個軍, 57個師團, 各種技術兵器 等 總 85萬名의 軍隊를 投入
- (2) 戰後復旧 및 中共軍 撤収 (53.11~60.10)
- 53.11 平壤市 復旧建設支援 中共建築技術者 770名 北韓 派遣
 - 53.11.10~27 金日成副長 中共訪問
動亂中 中共支援 謝意表示, 1954.4 「제네바」會談에 對備 한 共同戰略 協議, 10個年 經濟, 文化, 技術協定 締結
 - 54~57年間 8兆元의 無償援助, 相互紐帶 強化
 - 54~58 段階的 撤収, 58.10.26 全兵力 撤収 公布
 - 59.10.1 中共創建 10週年記念式 金日成 參加 6.25動亂中 軍事의 支援과 戰後復旧의 勞力의 支援과 援助 感謝 東方哨所 守護에 共同鬪爭 盟誓
 - 60.10 通商代表團 中共訪問, 北韓 7個年經濟計劃 支援을 確約
- (3) 對中共 一邊倒 外交活動 (61~65)
- 61年度부터 北韓과 中共關係는 새로운 轉機를 이룩함.
即 56年 蘇聯共產黨 第20次大會에서 「후루시초프」의 「스타린」批判과 平和共存路線 提唱에 依한 中, 蘇紛爭이 60年4月 表面化, 1961年부터 激化됨에 따라 北韓은 中共과 積極的 接近外交 展開
 - 61.7.11 金日成 蘇聯訪問 歸路, 中共과 友好協調 및

相互援助條約(軍事防衛條約) 締結

- 62년부터 더욱 接近, 中·印國境紛爭과 「쿠바」事態에 있어서 北韓은 中共路線 追從 表面化
- 65.2 北韓이 蘇聯과 接觸, 接近하게 되자 中共과 北韓과의 關係는 漸次 冷却

(4) 冷戰 및 非難活動(65~67)

- 65년부터 北韓과 蘇聯間의 外交關係가 親密해지자 中共은 間接적으로 北韓을 非難, 人士往來도 極히 低調
- 66.8.12 「自主路線 宣言」, 中共을 教條主義라고 公開적으로 非難
- 67年 中共은 홍위병을 통해 非難 展開
67.1.26 北韓도 中共通信社 聲明, 中共·非難
- 67.2 홍위병 壁報
「金日成이 北韓軍에 依해서 逮捕되었다」
「金日成은 修正主義者이며 「후루시초프」弟子이다。」 兩者間 非難 尖銳化

(5) 再結合 및 密着(68~)

- 69.7.11 雙方軍事同盟條約 8周年 즈음 로동신문 「우리人民은 台灣解放을 위한 中國人民의 투쟁을 積極 支持한다」고 迎合하려는 態度 보임。
- 69.9.30 北韓大規模 高位親善使節團 中共創建 20周年記念式 參席하고 燥心性있는 教育 始作
- 70.2.17 駐中共 北韓大使 再赴任
- 70.3.23 駐北韓 中共新任大使 赴任

다. 對自由圈

(1) 基本政策

- 美國에 대해서는 韓國共產化를 沮止하는 決定的 勢力으로 보고 極烈한 反美政策으로 一貫
- 其他 對西方諸國에 대해서는 西方陣營의 政治, 經濟, 軍事 面의 對立的 要素를 重視, 美國의 反共의 世界政策을 牽制하는데 提携할 可能性이 있는 所謂 「第2中間地帶」를 보고 同 諸國과의 關係改善을 希望
- 美國을 除外한 모든 西方諸國과 貿易 및 商去來 實施

(2) 對美關係

- 46.3.20 美·蘇 共同委를 비롯해서 47.5 서울에서 開催된 第2回 美·蘇共同委에서도 意見의 不一致로 韓國 問題가 美國의 提案으로 유엔에 移管되고 이 結果 第2次 유엔總會에서
 - ① 臨時韓國委員團 設置에 關한 決議(47.11.9) 採択
 - ② 48.3以前 同委員團의 監視下 總選舉 實施를 決議한 때로부터 유엔과 美國을 敵對視하게 됨。
- 그後 1950年 北韓의 南侵時 유엔軍의 一員으로 韓國戰에 參與(50.7.7)하게 됨으로써 더욱 敵對視
- 北韓은 지금껏 美軍이 韓國에 駐屯하고 있는 事實과 全般的으로 共產主義에 대한 가장 中心的인 國際勢力이 美國을 中心으로 하여 形成되었다는 點에서 美國을 敵對視하면서 美軍의 韓半島에서의 撤収를 外交活動의 基本目的으로 삼고 있다。

- 그러나 69以後 美国内의 左派勢力,乃至 共產主義者들과는 人民外交의 名目으로 紐帶를 強化, 美国内部에서의 反政府運動을 煽動支援

※ 69.8.19 美共産党代表團 平壤訪問(페토맨, Daily World紙 主筆)

※ 70.10.7 美共産党代表團 平壤訪問(美共産党委員長 핸디·민스턴)

(3) 对日關係(基本立場과 活動)

- 基本立場
- 北韓은 韓半島의 赤化統一政策의 一環으로 对日外交政策을 樹立 特히 余他 自由陣營 國家에 比하여 北韓과 隣接해 있어 極東에서 그 戰略的 價値를 크게 評價

美·日間의 緊密한 結束沮止

- 美·日關係의 緊密한 結束은 北韓의 安全保障과 韓國共產統一實現에 直接的인 影響을 주고 있어 北韓은 对日關係에 力點을 두고 있음.
- 48.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1期1次會議에서 金日成은 「日本을 帝國主義的 侵略國家로 再生시키려고 試圖하는 모든 國家는 우리民族의 怨讐이다」 宣言
- 51.9.8 北韓은 「센프란시스코」에서 美国 및 西方聯合國의 对日講和條約 締結과 美·日安保條約 締結에 非難聲明發表
- 北韓은 美·日安保條約을 비롯한 오끼나와 返還要求運動, 原子力 潛水艦의 日本寄港 反對運動 및 美国의 日本基地使用反對運動 等 日本共産党 및 左翼団体 反美運動을 積極支持 聲援

日本の 中立化 実施運動 및 再軍備 沮止運動

- 48.9.10 發表한 政綱에서 金日成은 「日本の 非軍国化 및 民主化」를 主張
- 59.2.27 日本共産党代表 宮本野治의 北韓訪問時 共同「몴뮤니케」에서 「우리는 日本人民의 民主的 發展과 中立化를 위해 鬪爭하는 日本人民을 全的으로 支持한다」고 宣言
- 61.9 北韓勞動党 4次党大会에서도 日本の 中立化 支援目標를 明白히 함.

韓·日關係 緊密化와 東北亞 軍事同盟 沮止

- 51.10 第1次 「韓·日會談」交涉이 始作되자 同 會談을 反對·沮止하는데 全力 傾注
- 62年以來 「韓·日會談」이 本格化되자 「韓·日問題의 解決은 統韓後에 해야하며 現時期에 妥結하려면 南半部(韓國)와 人民(北韓) 및 日本 三者會談의 方法으로 해야 하며, 우리(北韓)가 參加하지 않은 如何한 會談結果도 이를 認定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主張(로동신문 62.12.31) 日本에 壓力
- 65.2.25 「韓·日基本條約」假調印에 對해서 거듭 無効 主張
- 65.6.22 「韓·日條約」이 締結되자 23日 聲明을 通해 「韓·日間에 締結된 諸條約과 協定들은 美國의 東南亞 軍事同盟 造作을 위한 陰謀이며 自主的 平和統一을 沮害하고 祖國의 分裂을 永久化하는 것」이라고 非難 北韓도 對日賠償 請求權을 가지고 있음을 日本政府에 거듭 脅迫

国交 및 貿易正常化 企圖

- 北韓은 現在 日本政府에 대하여 對美 및 對韓關係와 日本政府의 反共的 側面을 들어 非難하고 있으나, 一方的인 韓·日間의 国交正常化를 끝까지 反對鬭爭하므로 日本政府로 하여금 「두個의 韓國」을 承認토록 對日国交正常化 劃策
- 對日国交正常化 및 諸般關係의 正常化를 公式的으로 表明하기로는 55.2.25 北韓外務相 南日의 「日本과 国交正常化 및 經濟·文化交流」 聲明
- 55.12.29 北韓外務相 南日是 再次 聲明發表 「双方国交正常化 및 在日僑胞 權利擁護問題를 討議하기 위하여 日本에 代表를 派遣할 用意가 있다」고 積極的 態度表明했으나 日政府는 否定的 態度
- 65.6.22 調印된 「韓·日基本關係條約」으로 因하여 日本의 北韓承認 및 国交正常化 實現 牽制
- 日本의 對北韓觀은 北韓의 承認 및 国交樹立까지는 考慮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請求權 交渉을 비롯한 經濟, 文化交流의 余他는 시사함。
- 그러나 北韓의 이러한 要求가 가까운 将来에 받아들인다는것을 생각할 수 없는만큼 現實的으로 可能的한 問題부터 漸次的으로 解決하는 戰術로 나오고 있음。
- 그래서 当面課題로서 日本出入国自由화와 貿易의 正常化에 두고 있음。 그러나 北韓은 對日外交에서 有効한 手段을 가지지 못하고 다만 日本共産黨과 社会黨과의 提携에 依해서 日本政府의 對北韓差別待遇를 是正하려고 努力하고 있음。
- 69.11 너슨·사프共同聲明에서 「韓國의 安保는 日本의 安保

와 直結된다」는 內容이 發表되자 北韓은 더욱 더 日本軍國主義 復活을 警告하면서 日本을 敵性國視하고 있음.

※ 北韓의 對日本政策의 二重性格을 띠고 있음.

(4) 對유엔關係

基本立場 ○ 유엔의 決議를 一切 無視, 同時에 유엔의 權威와 權能을 否定

○ 47.11.14 유엔決議에 따라 유엔의 韓國臨時委員會(UNCOK)이 設置되었으나 蘇聯占領軍은 이의 存在認定 拒否

※ 48. 이 委員會은 유엔韓國委員會(UNCOK)로 바뀜.

※ 48.12 유엔은 韓國을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로 宣言

※ 48.9.9 北韓地域에 「朝鮮人民共和國」이라는 괴뢰政權이 樹立되었으나, 유엔의 權威와 權能을 無視한 不法團體로 「언커크」가 유엔總會에 報告

※ 50年 유엔韓國委員會은 유엔韓國統一復興委員會에 依해 繼承됨.

※ 50.6.25 不法南侵으로 유엔에 挑戰

對유엔戰略戰術

○ 6.25 以前

※ 50.10.7 「언커크」가 設置되었으나, 北韓은 「언커크」와 유엔의 決議 및 活動을 繼續 非難, 拒否하고 同時에 「언커

크」解体案을 유엔總회에 提出

○ 休戰後

※ 休戰後 韓國에 駐屯하고 있는 유엔軍을 侵略軍 및 占領軍이라고 非難

※ 유엔決議에 依拠한 韓國側 統一方案을 繼續 非難함과 同時에 유엔軍의 撤収와 언커크解体를 前提로한 統一方案 隨時 提示

※ 共產主義 유엔會員國家를 通해 유엔에서의 北韓存在를 認識시키기에 급급

※ 世界輿論을 形成 유엔總회에 參加하려고 企圖

※ 유엔會員國들로 하여금 韓國問題에 관심을 느끼게 하여 이를 韓國內部問題로 歸着시키려고 努力

○ 70年 以後

※ 유엔에 대해서는 表面上 直接 非難을 避하고 美國이 유엔을 惡用하고 있다고 間接적으로 非難

○ 「두개의 韓國」의 實際 決議를 위한 유엔無台의 活用

라. 對外基本路線

(小結論)

(1) 對共產圈

○ 社會主義國家 相互間의 親善紐帶 強化

○ 實利 追求를 위한 自主外交 選擇

○ 社會主義 建設의 實踐方案 導入

(2) 對中立國

○ 平和共存 標榜, 親善紐帶 強化

○ 反帝, 反植民地運動 支援 및 連帶性 表示

○ 政治・經濟・文化的 浸透

(3) 对自由圈

○ 美国 및 自由陣營諸國의 非難離間

○ 社会主義 優越性 宣傳

○ 日本, 프랑스, 西独, 伊太利, 英国 等과의 經濟交流

別表 3

地域別 公館分布 現況

区 分 地 域	常駐大使館		兼任大使館		總領事館		計	
	韓國	北韓	韓國	北韓	韓國	北韓	韓國	北韓
亞 洲	8	6	2		7 (兼任 1 日 本内 8 個 領事 館은 除外)	5 (中共 内 3 個는 除外)	17	11
美 洲	7	1	17		(美国 内의 6 個 카 나다 1 個除外)		24	1
歐 洲	10	8	9		(西独 内 1 個 除外)	(蘇聯 나호뜨 카除外)	19	8
亞中東	12	20	16		1		29	20
計	37	35	44		8	5	89	40

3. 對外活動現況 및 展望

가. 對外公使 現況

(1) 陣營別 公使分布 概況

區 分	共 產 國	中 立 國	自 由 國
大 使 館	12	23	
總 領 事 館		5	
代 表 部	1	6	2

(스웨덴公報를 包含)

나. 招請訪問 現況

(1) 年度別 現況

(代表團/國家)

區分 \ 年度	1969	1970	71.6.30現在
招 請	153/52	189/54	195/70
訪 問	118/38	184/50	95/32

特徵：

- 年度別 招請, 訪問은 增加趨勢
- 70年度까지의 限定된 國家에서의 集中外交에서 71年度부터 國家數 擴大와 併行한 積極的 招請訪問外交 展開
- 71年度에는 招請外交에 力點

(2) 内容別 現況

別表 4

内容	区 分	年 度	
		1970	71.6.30現在
社会・文化	招 請	114/41	157/70
	訪 問	115/34	62/23
經 濟	招 請	13/11	17/10
	訪 問	36/24	15/12
軍 事	招 請	8/4	5/5
	訪 問	4/4	17/12
政 治	招 請	39/29	13/12
	訪 問	29/26	13/10
計	招 請	189/54	195/70
	訪 問	184/50	95/32

特徴：○文化部門의 国家数 增加는 理解增進을 위한 前進基地 축성

○ 經濟交流는 아적도 社会主義圈內에 重点을 두고 있음。

(12 個國中 9 個国家가 共産国家)

別表 5

地域別 招請訪問 現況

地域	区分	年度		
		1969	1970	71.6.30現在
亜細亜地域	招請	19/8	25/6	18/10
	訪問	15/6	9/7	4/3
欧 洲	招請	24/10	15/11	29/14
	訪問	8/18	17/7	3/3
아프리카地域	招請	13/9	21/14	21/13
	訪問	9/16	16/13	5/4
中東地域	招請	15/8	16/7	25/10
	訪問	28/7	29/10	13/6
美 洲	招請	9/7	7/5	16/13
	訪問		4/2	4/3
共 産	招請	69/10	90/11	40/12
	訪問	58/11	109/11	66/13
計	招請	153/52	189/54	195/70
	訪問	118/58	184/50	95/32

特徴：○共産圏 中心の 招請 訪問外交 中心

70年< 招請—全体 代表団 招請中 49%
 訪問— " 訪問中 59% 共産圏
 71年< 招請— " 招請中 49%
 訪問— " 訪問中 52%

○ 歐洲地域은 理解關係의 集中과 領域의 拡大 傾向

<小結論>

- 基本的으로 共產圈 中心外交 「패턴」脱皮 못함。
- ASIA와 유럽地域은 共히 實利 및 名分の 接近顯著
- AFRICA와 中東地域은 勢力圈 確保를 위한 政治的 接近努力이 強하게 나타남。

※ 全般的으로 外交伸張的 擴大 趨勢
→ 두個의 韓國問題에 積極 対応

다. 最近動向 分析

※ 招請, 訪問外交活動과 特徵 省略

(1) 北韓의 유엔傘下

國際機構 加入試圖

- 北韓은 71年 처음으로 유엔傘下 國際機構 加入試圖
 - ① 萬國郵便聯合(UPU)
 - ② 國際電氣通信聯合(ITU)
 - ③ 世界氣象機構(WMO)
- 그러나 世界氣象機構는 이미 71.4.8 北韓加入이 挫折되었으며, 其他 2個機構의 加入도 實現性 없음。
- 現在 北韓은 108個 一般國際機構에 加入(이中 30個 國際機構에서 南北統合)

(2) 中共과의 交流 強化

- 71.6.18~7.8 北韓陸運 및 海運省 代表 中共訪問, 海難協定 締結
- 71.7 朝·中軍事條約 10週年 記念行事 契機로 相互

訪問 頻繁

- ※ 71. 7.10-7.16 金仲麟 中共訪問
- ※ 71. 7. 9-7.15 兩江道 代表團 吉林省訪問
- ※ 71. 7. 9-7.17 吉林省 代表團 北韓 兩江道訪問
- ※ 71. 7.10-7.16 이선열 北韓訪問

○ 北韓・中共間 軍事同盟條約 10週年을 契機 相互 高位 層과 交流로 安保支援協力 다짐。

(3) 「차우셰스쿠」(루마니아 國家評議會議長) 北韓訪問
(71.6.9 ~ 6.15)

○ 訪問目的 :

獨自路線 勢力強化로 實利追求, 國際情勢에 對한 ASIA 諸國과의 意見支援 및 調整

○ 訪問成果 :

北韓—反美・日鬭爭과 平和統一方案 支持

루마니아—루마니아 獨自路線 支持

※ 國際共產主義運動에서의 中心主義 否定

(4) 中南美 北韓親善協會 總會開催

○ 場 所 : 「칠레」

○ 參加國 : 「칠레」, 「페루」, 「알젠틴」, 「큐바」, 「볼리비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北韓」

(8 個國)

○ 開催目的 : ○ 中南美 左傾勢力의 集體的 活用

○ 北韓의 中南美 「계릴라」支援問題 協議

(5) 第 6 次 社會靑大會 開催 (71.6.21-28)

○ 外國代表 招請數 : 75 個國, 150 個團體, 300 余名

○ 外国代表 招請目的：反美・日 宣傳에 動員

(6) 「시하누크」 北韓訪問 (71.7.22)

○ 訪問目的：美・中共接近 牽制 (亞洲反美共同戰線의 團結強化로 反美鬭爭支援 義務 強調)

○ 7.22 金日成主權 晩餐會에서의 演說要旨

(金日成) 朝鮮人民은 反帝・反美鬭爭을 積極 支援

(시하누크) 印支 3 個國人民은 美軍의 無條件 撤収前에 是 어떤 平和도 接受치 않을것임

※ 強大國에 의한 印支紛糾 解決 拒否와 弱小國 (北韓 等) 犧牲 不許

(7) 北韓 - 유고間 貿易協定 調印

○ 貿易協定을 通한 關係正常化 企圖

○ 共產諸國과의 共同步調 必要性

○ 對中立外交 効果的 展開

※ 66.8 自主路線 宣言後 對유엔 非難 삼가

○ 71.9 外交關係 設定

(8) 對外宣傳活動의 強化

○ 親善組織 및 金日成 勞作研究小組 增加現況

年 度	親 善 組 織	金日成勞作研究小組
70.12 現在	46 個國 85	28 個國 68
71.6.30 現在	49 個國 96	40 個國 150
增 加 數	3 個國 11	12 個國 82

○ 中東선 宣傳費만 年 80 萬弗

○ 地域別 宣傳活動 特徵 (71.1.1-6.30)

地域	內容	宣傳件數	重點地域	宣傳內容	備 考
亞洲地域 (12 個國)		366	싱가폴, 파키 스탄, 印度	金日成偶像化	南北競合地域, 情勢流動性
中東地域 (17 個國 3 個團體)		466	아랍共, 레바 논, 시리아, 이락, 수단	"	全中立地域 宣傳의 拠点 으로 利用
아프리카地域 (39 個國)		135	콩고(브), 탄자니아	"	反美反植民感 情利用
美洲地域 (11 個國)		42	칠 레	"	反美感情利用
西歐地域 (16 個國)		56	프랑스, 오지 리, 서서, 핀란드	北韓社會發展 相 및	이 데오로기傾 向 利用

○ 小結論 :

71年 前半期の 北韓對外宣傳 強化目的은 脫「이 데오로기」傾向
과 分斷國 承認趨勢 그리고 亞細亞情勢의 流動에 對処

- ① 中立諸國에의 積極 浸透與件 造成
- ② 金日成을 韓半島 唯一의 指導者像으로 浮刻
- ③ 韓·美·日 體制 離間
- ④ 北韓挑發에 對한 韓國主張 封鎖

(9) 北韓 對蘇·對中共 軍事同盟

條約締結紀念行事 分析

(가) 代表團 交換 및 構成과 行事關係

- 蘇聯과는 蘇聯代表團만이 北韓訪問, 中共과는 相互交換 訪問
- 蘇聯代表團은 外交經濟分野 高位層으로 構成, 中共代表團은 外交經濟는 勿論 軍事分野까지 包含, 더우기 中共訪問 北韓代表團은 軍事를 爲主로 한 經濟外交代表團임.
- 蘇聯에서 보다 中共은 大大的인 行事와 首腦級 參加
- ※ 이는 ① ASIA에서의 主役이 美國으로부터 日本으로 옮겨지는데 對한 北韓·中共間의 共同的인 利害關係의 增大
- ② 이에 對한 ASIA 反美共同戰線의 確固한 團結의 示威

(10) 닉슨 中共訪問 決定에 對한 北韓態度

(가) 直接反應

- 「닉슨」中共訪問은 中共 및 反帝革命 力量에 對한 屈伏 및 「白旗를 들고 北京에 간다」는 表現으로 美國의 對中共 孤立化政策의 破綻을 規定짓기에 이르렀다.
- 中共은 ASIA 反帝革命力量의 기둥이며 앞으로는 反帝鬪爭 支援을 다짐
- 北韓은 革命의 終局的 勝利를 위하여 國際革命力量과 의 團結과 自體의 主體的 革命力量 強化 強調

※ 中共：繼續 積極支援 約束과 說得態度 併行

蘇聯：解放革命勢力的 親友는 蘇聯이다。

(7.26 「코메콘」 25次總會 - 부카레스트 政府機關誌)

(나) 評 価

○ 北韓은 8.5 前까지는 北韓에 미치는 影響이 莫重하므로 公式論評을 回避, 間接으로 對美接近을 牽制

※ 이는 ① 韓半島 分割現狀 固着으로 赤化統一 實現 稀薄 可能性

② 對內外的 鬭爭目標 喪失 憂慮와

③ 中, 蘇의 對美接近으로 疎外될 可能性 等이 있 기 때문임。

○ 그러나 北韓은 8.5 「시하누크」 歡迎 平壤市群衆大會에 서는 美, 中共接近을 現實로서 肯定的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立場에서 對美 強硬鬭爭을 名分으로 한 對 內外政策 方向의 自獨立 必要性을 認定하고 다음의 方 策 展開하려는 것임。

○ 對內的 反美鬭爭 名分喪失로 動搖와 混亂을 美國의 對 中共 屈伏 및 中共의 對北韓支援 確約 事實을 들어 未然防止할 수 있고

○ 對外的으로 自體의 全體的 革命力量 強化가 革命的 終 局的 勝利 保障한다는 그들의 基本路線의 正當性을 誇 示할 수 있기 때문임。

라. 結論 및 展望

71年 한해는 北韓이 自身の 背後支援勢力 弱화 可能的 高리
인 美·中共接近을 中共유엔加入과 Universerlity 趨勢에
迎合한 能動的 活動으로써 牽制하면서 韓國孤立化를 위한 國
際的 挑戰態勢를 갖추고자 狂奔한바 있었다.

(1) 外交活動 力点

(緊張緩和 趨勢에 便乘한 積極活動)

- 招請訪問外交 繼續 積極化로 北韓 「이미지」 浮刻 努力
 - 71年을 70年에 比해 招請訪問外交 50% 增加
 - 從來, 共產圈, 亞州, 中東地域—西歐, 美洲
 - 對外宣傳—北韓合法性, 社會發展相 宣傳에 注力(暴力革命 輸出로 4月以後 宣傳 全般的으로 退潮)
 - 對自由圈 借款導入 相談 積極化
 - 金日成의 日本著名人士들과의 對談에서 貿易擴大 및 各
種 Plant 導入을 強力히 希望—間接的 對日覺書貿易
4,000萬\$ 提議
 - 英國 7,000萬\$ 借款申請, 프랑스—石油化學工場, 建設用
施設財 導入을 위한 遮斷交涉

(2) 同盟條約記念, 「닉슨」 訪中 決定에 따른 動議

- 對中·蘇 安保保障
(蘇聯의 對北韓 冒險政策 牽制의 浮刻, 中共對美接近에 따
른 對北韓說得傾向 露出)

(3) 對中·蘇關係 展望

- 「이네울로기」와 國家關係 分離現象 加速化—對中·蘇
外交 再評價 不可避로 姿勢鼎立時期에 접어듦.

- ① 中共—韓半島를 安保 危脅要素로부터 그의 影響力強化 위한 革命輸出 基地方向으로 誘導해나갈 可能性
(對南不安 緊張의 多樣化 要因)
- ② 北韓—安保上 中共과의 共同關心事를 「이 데올로기」 및 汎 亞細亞的 次元에서 牽制 說得하여 紐帶強化 繼續 努力
(對中共關係 커다란 變化를 期待못한 要因)
- ③ 蘇聯—北韓의 親中共離奪을 위한 經濟協力 繼續 強化
(自主路線을 보다 強化, 現實外交 置重)

72年度 情勢展望

- 對外面에서 中共을 主軸으로 한 亞洲 反美·日 共同戰線을 加一層 強化하고 蘇聯 및 東歐와의 實利外交를 繼續 堅持함은 勿論, 對美人民外交와 對日關係 改善을 발돋움하는 한편 對西方 經濟外交를 積極 推進하고 西歐 및 大陸에 對한 浸透을 보다 強化할 것이다.

